

ODA 현대화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

1. ODA 현대화 논의 배경

- '12년 EU에 대한 OECD DAC의 동료검토 이후, 개발 환경 변화에 따른 ODA 개념 및 통계보고 변경 논의 시작
 - EU에 대한 DAC 동료검토에서 EU 자원 부족으로 저양허성 대출이 증가한 것이 드러나자 각 회원국들이 저양허성 대출에 대한 ODA 인정 여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
- '15년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: SDGs) 발표 이후, 개발자원 수요 증가 및 민간 중요성 확대로 ODA의 촉매제 역할이 강조되며 ODA 현대화 논의 가속화

2. ODA 현대화 주요 내용과 경과

- (ODA 再정의) ODA 인정 시 적용하는 할인율을 저금리 기조와 국별 위험프리미엄을 고려하여 변경하고, 측정 방식도 순지출액에서 증여등가액으로 바뀌 '18년 ODA 통계부터 적용
 - ODA 적격기준을 기존의 '할인율 10% 적용 시, 증여율 25% 이상'에서 '소득그룹별로 차등할인율(9%, 7%, 6%) 적용 시, 증여율 45%, 15%, 10% 이상'으로 변경
 - ODA 측정방식도 지출액에서 회수액을 뺀 순지출 방식(Net Disbursement)에서, 지출액에 증여율을 곱한 증여등가액 방식(Grant Element)으로 변경

< ODA 再정의의 의의 >

- ▶ **(적용 할인율 변경)** 1972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ODA 적격 기준인 '할인율 10% 적용시, 증여율 25% 이상'을 소득그룹별로 차등화하여, 저소득국 앞 양허성 높은 자금을 우대
- ▶ **(증여등가액 적용)** 순지출 기준을 증여등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증여율이 높은 자금을 우대하는 등 공여국의 노력을 반영하고, 순지출 기준에서는 유상차관이 결국 '0'으로 기록되는 문제도 해결

| 구 분 | 변경 전 | 변경 후('18년 ODA보고액부터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ODA 적격기준 | 1. 공적주체가 제공 2.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에 사용 3. 증여율 25% 이상 (모든 국가에 대해 10% 할인율 적용) | 1. 공적주체가 제공 2.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에 사용 3. 소득그룹별로 적격증여율 차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LDC/LIC : 45% 이상 (9% 할인) - LMIC : 15% 이상 (7% 할인) - UMIC : 10% 이상 (6% 할인) |
| ODA 측정방식 | 순지출방식 | 증여등가액방식 (총지출액 × 증여율) |

- **(민간지원수단 ODA 보고)** OECD DAC은 ODA 통계보고 시, 민간지원수단(Private Sector Instrument: PSI)을 분리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를 독려

- PSI는 '18.12월 확정된 임시방식*을 활용하여 ODA로 보고

* 현재 적용 할인율이 합의되지 않아서, '18년은 기존 방식(순지출 기준, 10% 할인율 적용 시 증여율 25% 이상)을 적용하여 계산

- **(총공적지원 서베이 실시)** OECD DAC은 총공적지원(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: TOSSD) 측정 방안을 마련하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'18년 실적 조사 실시

3. ODA 再정의 관련 '19년 동향

- '19.4월 OECD DAC은 '18년 ODA 지원액에 대해 소득그룹별로 할인율을 차등하여 적용한 증여등가액 방식의 ODA 잠정통계 보고 발표

- 증여등가액 기준으로의 변경에 따라, 과거 지원한 차관 회수액이 큰 일본은 순지출 기준 대비 ODA가 크게 증가(40.8%)한 반면, 저양허성 차관을 지원하는 독일(△3.5%), 프랑스(△2.8%)는 소폭 감소
- 우리나라는 고양허성 차관에도 불구하고 회수액 규모가 적어, 증여등가액 기준으로 바뀌며 소폭 감소(△4.2%)

< 2018년 순지출 및 증여등가액 기준 ODA 지원액 비교 >

(백만불)

| 국 가 | 순지출기준 ODA(A) | 증여등가액기준 ODA(B) | ODA 차이(B - A)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ODA/GNI(%) | | (B-A)/A(%) |
| 독 일 | 25,886 | 24,985 | 0.61 | △901 | △3.5 |
| 일 본 | 10,064 | 14,167 | 0.28 | 4,103 | 40.8 |
| 프랑스 | 12,504 | 12,155 | 0.43 | △349 | △2.8 |
| 대한민국 | 2,417 | 2,351 | 0.15 | △102 | △4.2 |
| DAC 회원국 전체 | 149,323 | 153,025 | 0.31 | 3,702 | 2.4 |

4. PSI 관련 '19년 동향

- '19년은 PSI를 공공부문 ODA와 분리 보고한 원년으로서, PSI는 2,460백만불로 총 ODA 중 2.2% 차지

- 회원국들은 기관중심 보고와 수단중심 보고 중 선택하여 보고 가능

▶(기관중심) 기관의 전체활동 중 ODA 적격활동을 구분하여 ODA 인정계수를 설정하고, 정부 출자금 등 현금순유입액에 계수를 곱하여 ODA 금액 계산

$$\text{ODA 인정계수(Co-efficient)} = \frac{\text{DFI}^* \text{의 ODA 적격활동}}{\text{DFI의 전체활동}}$$

* DFI :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

▶(수단중심) 개도국 민간차주 앞 대출, 보증, 지분투자 등 금융수단별(지원내역별) 지원액을 ODA로 계상

- 지속적으로 출자를 진행해 온 영국 및 북유럽 국가들은 기관중심 보고를 실시한 반면, 추가 출자가 필요없는 DFI를 운영하는 독일·프랑스와 DFI가 없는 일본은 수단중심 보고를 실시함

- 기관중심 보고를 한 국가는 7개 국가로서 총액은 1,470백만불이며, DFI인 CDC에 출자금액을 보고한 영국이 990백만불로 가장 큰 금액을 보고

- 수단중심 보고를 한 국가는 8개 국가로서 총액은 990백만불이며, 프랑스가 가장 큰 금액인 419백만불 보고

5. TOSSD 관련 '19년 동향

- '19년 OECD DAC은 회원국 앞 TOSSD 보고 방식을 안내하고 TOSSD 서베이에 참여할 것을 요청
 - TOSSD 중 국경간 자금흐름을 측정하는 지침은 배포되었으나, 국제공공재를 측정하는 지침은 미완료
 - 보고범위 : ODA를 포함한 공적자금으로 TOSSD 대상국가에 지원된 총지출기준 현금흐름을 보고
 - 공적자금(양허성 무관) 및 공적자금으로 인해 동원된 민간자금
 - 수출금융은 개발목적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포함

6. 향후 전망

- PSI 임시보고 방식이 '20년까지 적용되므로, 내년말까지 PSI 적용 할인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
 - 적용 할인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, 공공부문 ODA와 같이 증여등가액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어 수단중심 보고 PSI의 통계 불일치 문제가 해결될 전망
 - 단, 적용 할인율 합의 이후에도 기관중심 보고와 수단중심 보고의 차이로 인한 통계 불일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됨
- TOSSD는 아직 UN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, 통계 지침도 미진함에 따라 실제 정확한 통계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
 - UN은 TOSSD로 인해 ODA 예산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일부 개도국이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TOSSD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음

자 료 : 임소진, 석창민 (2016), ODA 현대화 최근 논의 분석 1 :

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(TOSSD), 한국의 개발협력 No3, EDCF
정재형, 박민정 (2016), ODA 현대화 최근 논의 분석 2 :

민간금융수단(PSI)과 추가성, 한국의 개발협력 No3, EDCF
윤소담 (2019), OECD DAC 2018년 공적개발원조(ODA) 실적 발표, EDCF
OECD, '2018 ODA statistics in detail' (April 10, 2019)

(<http://www.oecd.org/dac/financing-sustainable-development/development-finance-data/ODA-2018-detailed-summary.pdf>)

작 성 : 선임심사역 조 은 진, ejcho@koreaexim.go.kr